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제조 생산, 9월과 10월에 겨우 소폭 상승
- WSJ: 10월 미 소매 판매, 연말 시즌 앞두고 1.3%나 늘어
- WSJ: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 늦춰도 인상 계속해야”
- Bloomberg: JP모건, “연준 금리 조치로 내년에 미국은 완만한 침체”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모기지율 7% 미만으로... 7월 이래 가장 큰 폭 하락
- Bloomberg: 오늘 주식 하락세... 소비 증가로 연준 금리 진행 예상 탓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글로벌 침체가 온다 해도 인플레이 막지 못할 수도
- WSJ: 연방의회 위원회, “의회는 행정부에 중국과 무역 관계 중단 여부 검토토록 해야”
- Bloomberg: 중국 인민은행, 인플레이 위험에 직면...경제 안정 유지 약속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골드만삭스 "빅테크 해고 행렬,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니다"
- 연합: 연준 보고서 "주담대 금리 부담에 미국 집값 20% 하락 가능성"
- 연합: 애플, 2024년부터 美 애리조나 공장에서 반도체 조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미 소매점들, 신용카드 연이율 30% 넘긴다
- WSJ: CFO들, 경기 침체 대비한 보험으로 신용 한도 늘린다
- CNBC: Microsoft, Meta 등의 데이터 센터, 가뭄 유발한다
- WSJ: Target, 실적 부진으로 주가 급락...인플레이 영향
- CNBC: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공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Factory Output Barely Rises After Tepid Gains in Prior Months

미 제조 생산, 9월과 10월에 겨우 소폭 상승

- 미국 제조 생산이 지난 수개월 동안 하락 수치로 재조정된 후에 10월에도 예상치 보다 적게 상승했다. 미 국내 및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김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 연준의 오늘 수요일에 따르면 미 제조 생산이 9월에 0.2% (하향 조정)밖에 늘지 않았고, 10월에도 0.1% 겨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업과 유틸리티를 비롯한 전체 산업생산은 10월에 오히려 0.1% 하락해 지난 3개월 동안에 두 달째 하락하는 모습이다.

Bloomberg 기사

WSJ: U.S. Retail Sales Rose 1.3% in October Ahead of Holiday Season 10월 미 소매 판매, 연말 시즌 앞두고 1.3%나 늘어

- 미 소비자들이 일상 필수품과 자동차, 가구 등 비싼 물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10월에 미 소매 판매가 크게 올랐다.
- 소매 판매가 포함되는 품목은 의류, 와인, 가구, 외식 등이다. 9월에 비해 10월에 계절 조정치로 1.3% 늘어난 것이라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지난 9월에는 8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 미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한 품목은 주로 자동차 구매, 가구 구입, 식료품과 가솔린 사용이었다.

WSJ 기사

WSJ: Reducing Inflation Without a Recession Might Not Be Feasible, Fed Official Says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 늦춰도 인상 계속해야”

- 캔자스시티 연은총재인 Esther George는 과열된 일자리 시장으로 인한 인플레이가 경제에 더욱 고착화될 수 있고, 침체 없이 연준의 인플레이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한마디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어도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
- 그는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을 보고 있다. 실질적인 둔화 없이 인플레이 수준을 어떻게 낮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플레이를 낮추려면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낮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WSJ 기사

Bloomberg: JPMorgan Sees ‘Mild’ US Recession in 2023 on Fed’s Rate Hikes JP모건, “연준 금리 조치로 내년에 미국은 완만한 침체”

- 완만하지만 이같이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근거로 금리 인상 때문에 1백만 명 이상이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 덧붙여 2024년이 되어야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전환(pivot)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JP모건은 연준이 오는 12월에는 0.5% 금리인상, 그리고 내년 첫 2개 회의에서 각각 0.25%를 인상해서 결국 4.75%~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Mortgage Rates Drop Below 7% in Biggest Decline Since July

미 모기지율 7% 미만으로... 7월 이래 가장 큰 폭 하락

- 지난주 미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7월 말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7% 이하로.
- 11월 11일 끝나는 주의 경우 30년 고정 계약 모기지율이 2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6.9%를 보였다고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은 오늘 수요일 밝혔다. 관련 주택 구입 신청 지수는 4.4%로 지난 6월 이래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파이낸싱 거래 지수도 22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 수요 증가로 채용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모기지 신청 건수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채용자 거래 지수(index of refinancing activity)는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Stocks Drop as Retail Data Dim Pivot Hopes: Markets Wrap

오늘 주식 하락세... 소비 증가로 연준 금리 진행 예상 탓

-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0월 미 소매 지출이 지난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경제가 좋아 향후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됐다. S&P 500, Nasdaq 100이 하락했다.
- 현재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 1982년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역전(inverted)되었다. 현재 단기물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아 연준의 긴축 금융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Even a global recession may not crush inflation 글로벌 침체가 온다 해도 인플레이션 막지 못할 수도

- 글로벌 경기 침체 움직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 당초 많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부 품목에만 해당된다고 믿었다. 미국은 중고차, 중국은 식품, 유럽은 에너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품목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거기다 달러 강세로 수입품의 가격은 더 높았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 현상이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더 큰 이유는 임금 때문이다. 임금 상승세는 미국에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의 경우 크게 오르고 있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 여기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점이다. 중간 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물가는 내년엔 5% 인상될 것이라고 조사됐다(Cleveland Fed, Morning Consult, Raphael Schoenle of Brandeis University).
- 미국 기업들의 경우 향후엔 인플레이션이 7%가 될 것이라고 예상, 지난 2018년 관련 조사 이후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이다(Bernardo Candia, Olivier Coibion and Yuriy Gorodnichenko, three economists).
- 경제가 둔화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물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지 고민이다.

The Economist 기사

WSJ: U.S. Panel Calls for Review of China Trade Relations 연방의회 위원회, “의회는 행정부에 중국과 무역 관계 중단 여부 검토토록 해야”

- 의회 내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 1999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 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을 준비할 때 중국에 영구적인 정상적 무역 관계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부여했었다.
- 중국이 이 같은 1999년 양국 간의 협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의회가 연방 정부에 검토를 요구하고, 만약 검토 결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 관계를 중단하라는 권고안이다.
- 검토 기간은 90일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PBOC Sees Risk of Rising Inflation, Vows to Keep Economy Stable

중국 인민은행,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경제 안정 유지 약속

- 중국 인민은행(PBOC)은 수요일 발표된 분기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가속화, 특히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경제 지원을 늘리고 유동성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코로나 통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 변화가 일어나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 한편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서 벗어나 있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느슨한 통화 정책이 맞물려 위안화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11월 반등했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골드만삭스 "빅테크 해고 행렬,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니다"
- 연합: 연준 보고서 "주담대 금리 부담에 미국 집값 20% 하락 가능성"
- 연합: 애플, 2024년부터 美 애리조나 공장에서 반도체 조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Some retail store credit cards now carry APRs of more than 30%

미 소매점들, 신용카드 연이율 30% 넘긴다

-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Kroger, Bloomingdale's, Macy's, Shell, Exxon Mobil, Wayfair를 포함한 최소 6개의 주요 소매 브랜드 신용카드가 최근 최대 연이율(APR)을 30% 이상으로 올렸다.
- 한편 이번 주 화요일 연준의 가계부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가 3분기 누적 부채는 16조 5천억 달러로, 전례 없는 속도로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식품, 연료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강력한 수요와 높은 물가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 그럼에도 연체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9월 기준 미상환 채무의 2.7%가 연체되어 2019년 4분기(4.8%)보다 줄었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맞선 미국인들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CNN Business 기사

WSJ: Some CFOs Are Boosting Their Credit Lines as Insurance Against Recession

CFO들, 경기 침체 대비한 보험으로 신용 한도 늘린다

-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해 경제 전망이 복잡해지면서 일부 기업의 CFO들이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 한도를 늘리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포장, 화학제품 등 가동자본의 수요가 높은 일부 업종(Some industries with higher working capital needs, including packaging and chemicals)이 지난해보다 신용 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다.
- 경기 침체 대비 외에도 더 높은 투자 비용과 재고 비용에 대응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한편 데이터 제공업체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S&P 500의 462개 기업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현재 3조 1천9백억 달러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난 1년간 13%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2019년의 2조 1천 9백억 달러를 웃돈다.

WSJ 기사

CNBC: Microsoft, Meta and others face rising drought risk to their data centers

Microsoft, Meta 등의 데이터 센터, 가뭄 유발한다

- 미국의 가뭄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해당 지역의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며 열을 내뿜는데, 이것을 식히는 데에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 버지니아 공대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는 자체 냉각을 위해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만 갤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10만 가구의 물 소비량과 같다.
- CyrusOne은 가뭄이 심한 피닉스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설계를 바꿔 비용이 더 비싸더라도 냉각에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메타는 데이터 센터 상대 습도를 20%에서 13%로 줄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냉각에 사용되는 모든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CNBC기사

WSJ: Target Earnings, Sales Sapped as Consumers Pull Back Target, 실적 부진으로 주가 급락...인플레이 영향

- Target에 따르면 10월 분기 재고는 1년 전보다 14.4% 증가한 반면 분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10월과 11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으면서 지출을 줄이며 매출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Target의 주가는 오늘 수요일 12% 가까이 하락했다.
- 반면 경쟁 업체인 Walmart는 분기 판매량이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가정용품, 의류, 전자/미용 제품 등 재량적인 범주에 지출을 줄이고 더 저렴한 식료품을 찾아 움직이게 되면서 Walmart는 더 많은 소비자를 흡수하고, Target은 소비자를 잃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된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매 지출은 9월보다 1.3% 증가했다(인플레 조정 전). 정부는 앞서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7% 올랐다고 보고한 바 있다.

WSJ 기사

CNBC: Toyota unveils new Prius hybrids amid skepticism of its EV strategy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공개

- 이번 주 화요일 도요타는 EV 전략회의를 통해 주력 차종인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신형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프리우스 프라임을 발표했다. 두 가지 모두 완전한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전기부품의 형태인 것.
- 도요타는 언제까지 하이브리드를 만들 것이냐는 최근의 비판에 대해 “EV만이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높은 비용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EV 채택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당장 전기차를 선택할 수 없는 운전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부의장 "가상화폐도 기존 금융처럼 강력한 규제 필요"

"가상화폐로 인한 금융시스템 충격 위험 우려"

뉴욕 연은, 시중 금융기관과 '디지털달러 결제 속도' 12주 시험사업

거대 코인거래소 FTX 파산으로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마이클 바 부의장이 가상화폐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인 바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비은행권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활동을 분명히 포함해 가시성·투명성·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금융시스템상의 더 광범위한 위험이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가 관할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새로운 자산군들에 강력한 가드레일이 없는 경우와 관련한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